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응사”는 좋은 추억을 함께 나눈 친구 같아요

종영한 tvN ‘응답하라 1994’ 쓰레기 역 정우

지난해 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의 마지막 촬영이 끝난 순간, 남자 주인공 정우(33·사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뜬금없게도 촬영장의 ‘난로’를 끄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흥분하면 사고가 나기 쉽다는 생각에 그러했다는 정우는 연출을 맡은 신원호 PD와 포옹을 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눈물이 왈칵 터져나왔다. 드라마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과거를 돌아보는 그의 표정에는 극중 ‘쓰레기’가 지니고 있었던 진중함과 장난스러움이 모두 묻어났다. 지난달 종영한 tvN 드라마 ‘응사’에서 남자 주인공 ‘쓰레기’ 역할을 맡아 열연한 정우를 최근 서울 종로에서 만났다. “일단 아무 사고 없이 드라마를 잘 끝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작품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정우는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했지만 ‘응사’로 뜨기 전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무명’ 생활을 보냈다. 스스로도 ‘신인 아닌 신인’으로 십수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응사”는 ‘참 멋있는 놈’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굉장하 멋있는 놈이요. 좋은 추억을 함께 나눈 친구 같은 존재 말이예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corresponding text for each sign.

TV 하이라이트



태양계 내 생명체 존재 위성

세계의 눈(EBS·밤 11시15분)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태양계 내 위성들을 소개한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에서 액체 메탄과 에탄으로 된 호수를 발견했다. 타이탄은 지구 외에 표면에 액체가 있다고 알려진 최초의 천체이며



상처 받은 남·여 까칠 연애사

반청교(KBS2·밤 11시10분)는 매일 목숨을 내놓고 사건 현장에 뛰어들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를 구하지 못한 상처를 간직한 소방관 ‘강일’. 매번 제 멋대로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며 상처도 사랑도 없는 적하지만 단 한번의 실수로 위기에 처한 의사 ‘미수’.

대기 중에서 유기물질이 감지되기도 했다. 역시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선 마치 간헐천처럼 표면에서 얼음이 분출돼 우주로 수백 킬로미터까지 치솟는 광경이 목격됐다.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손꼽고 있다. 목성의 위성 중에선 이오에서 얼어붙은 표면 아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미수’가 ‘119 구조대 의용대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같은 구조대에 있는 ‘강일’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강일’에게 애정공세를 펼치는 ‘미수’.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까칠함으로 일관하던 강일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며 살지만 정작 자신의 상처는 돌보지 못하는 ‘강일’과 ‘미수’.

Large advertisement for JAU TOUR (자유투어) featuring travel packages, discounts, and contact information.